

숨페터와 한국의 경제학자 김준보*

성 낙 선** · 김 준***

논문 초록 | 숨페터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경제이론, 통계학, 역사학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학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숨페터에 비교할 만한 경제학자 김준보가 있다. 그는 농업경제학을 주 전공으로 하면서도, 통계학, 경제이론, 경제사에 정통한 경제학자였다. 그는 경제이론이 역사분석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제일급의 경제학자였다. 숨페터와 김준보의 경제과학은 개념, 방법, 접근에서 맑스에게 상당히 의존한 것이었다.

핵심 주제어: 숨페터, 김준보, 경제과학, 통계학, 경제사학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2, B3, B4

투고 일자: 2025. 6. 23. 심사 및 수정 일자: 2025. 8. 21. 게재 확정 일자: 2025. 9. 10.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논문은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사회경제학회 분과의 발표문에 기초한 것으로써 유익한 토론을 해준 동국대학교 이상호 교수와, 논문을 꼼꼼히 읽고 세부적이고 호의적인 평을 해준 3명의 심사위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 제1저자, 한신대학교 경제금융학전공 교수, e-mail: nssung@hs.ac.kr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e-mail: kyunkim1@naver.com

I. 머리말

조세프 슈페터(1883. 2. 8. -1950. 1. 8.)는 경제이론, 경제학 방법론, 경기순환, 경제학설사, 경제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예리한 관찰이 돋보이는 저서와 논문들을 많이 남겼다. 그의 연구 생활 전체를 통틀어 주된 관심은 자본주의 과정의 이론적, 역사적, 통계적 분석에 있었다. 슈페터는 자신이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경제사를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Schumpeter, 1954/2013, 1권, 68쪽). 그러나 정작 ‘경제사’에 관한 책은 쓰여진 적이 없다. 그의 제자인 사무엘슨에 따르면, 슈페터는 생애 말년에 역사적 방법이 이론적 방법이나 통계적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Samuelson, 1951, pp. 49-50). 그에게 역사는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본질적 부분이었다. 많은 통계자료와 역사적 예증을 제시해 혁신이론을 전개한 『경기순환』(1939)에서 ‘역사적 접근이 순환적 진화과정 문제에 대해 근본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피력하기도 했다(Stolper, 1994, p. 96).

경제사를 강조한 슈페터가 경제이론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일찍이 그는 복잡한 경제 현상을 단순하고 정밀하게 분석한 레옹 발라스의 일반균형이론을 극찬한 바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과정의 진화적 성격에 점차 주목하면서 기업가의 기능과 역할을 다룬 『경제발전이론』을 발간한다. 본 대학 시절에는 통계적 방법에 관한 소논문을 쓴 적이 있고, 그의 교수자격 강연도 “통계학에 의한 추상적 정리의 검증”이라는 주제였다(Seidl, 1984, p. 191). 그런 만큼 슈페터는 통계학의 중요성을 학문생활 처음부터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잠시 머무를 때 계량경제학회 창립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그 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학이 경제적 사실 간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사회·정치 문제와 두루 연계된 사회현상을 폭넓게 관찰해서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제학과 경제문제에 관한 글 이외에도 ‘제국주의’나 ‘사회계급’과 같은 경제사회학의 분야를 틈틈이 다룬 것도 그런 이유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슈페터는 경제학이 역사, 이론, 통계학과 경제사회학을 아우르는 통합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양에 슈페터라는 대단한 경제학자(great economist)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김준보(1915. 7. 21. -2007. 12. 12.)라는 빼어난 경제학자(top rank economist)가 있었

다. 그는 슈페터가 쓰지 못한 경제사를 직접 연구했고, 슈페터가 했던 경제이론, 통계학 그리고 경제사회학에 관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한 경제학자였다. 슈페터가 맑스를 ‘사실과 이론을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경제이론이 역사분석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인식한 최초의 일급 경제학자라고 평했듯이(Schumpeter, 1942/2016, 75 쪽), 김준보는 지대이론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의 역사를 다룬 『한국자본주의사연구』라는 탁월한 저서를 남긴, 한국경제학계의 ‘균계일학’이었다(주종환, 2009, 117쪽). 그는 주 전공인 농업경제학을 넘어 경제이론, 경제통계학을 아우른 전방위적인 경제학자로서, 총 20여 권이 넘는 저서와 50여 편의 논문을 출간, 발표하였다. 『한국자본주의사연구』 I · II · III(1970, 1974, 1977) 외에도 그의 대표작으로 『일반경제학』(1958), 『이론경제학』(1961), 『농업경제학서설』(1967), 『경제통계론』(1969), 『현대경제학서설』(1981) 등을 들 수 있다.

김준보는 농업경제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창설하면서 교육에 힘쓰는 한편,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일 때에는 『농업경제학서설』(1967)을 쓴 바 있다. 정년 이후에도 농업과 관련된 『토지문제와 지대이론』(1987)을 저술하였다. 경제이론 분야에서 그는 한국의 어느 경제학자보다 앞선 인물이었다. 그의 『일반경제학』(1958)은 경제학의 ‘원리’부터 시작해 한 나라의 국민경제와 세계경제, 후진국경제까지 다룬 역저이다.¹⁾ 『이론경제학』(1961)은 케인즈의 모형을 설명한, 요즘 식으로 말하면, 거시경제를 다룬 경제이론서이다. 김준보는 한국에서 통계학을 독보적으로 개척한 통계학자이기도 했다. 『현대통계학』(1954), 『추측통계』(1955), 『경제통계론』(1969) 등은 한국의 대학에서 통계학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던 시절에 쓰여진 저서들이다. 산업연관분석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던 시절에,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계작업이 아주 초보적인 시절에 『산업연관분석론』(1975)을 저술하기도 했다. 한국의 임금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한국경제와 임금구조』(1979)도 저술했다. 한마디로, 김준보의 경제사, 경제이론, 통계학, 경제사회학에 관한 다양한 저술은 통합학문을 지향한 슈페터의 그것에 견주어 봐도 별로 손색이 없고, 토론이나 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않던 당시 한국 경제학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의 성과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작업이었다.

이 글의 목적은 슈페터의 경제학과 그의 관심 분야에 기초해서 한국의 경제학자

1) 1958년 출간된 『일반경제학』은 당시 고등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필독서였다(박정근, 2009, 67쪽)고 하니,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의외의 현상이라 하겠다.

김준보의 학문적 위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²⁾ 이하 제Ⅱ장에서는 슈페터의 경제과학과 방법론, 경제동학, 경제사회학을 그의 저서에 근거해서 폭넓게 정리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김준보의 경제학과 경제사, 경제이론, 통계학의 특징에 대해 각각 살펴볼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슈페터의 경제학과 김준보의 경제학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경제학자 김준보의 학문적 위상을 밝혀보려고 한다. 여기서 한가지 미리 언급할 것은, 경제학자를 종종 비교할 때 이자이론이라든지 투자이론, 화폐이론, 경기순환론 등 경제학의 소주제를 택하지만, 이 글에서는 『경제분석의 역사』의 서장 가운데 “경제과학을 연구하려면 경제사, 통계, 경제이론, 경제사회학 그리고 정치경제학의 분석기법이 필요하다”(Schumpeter, 1954/2013, 1권, 67, 80-81쪽)는 슈페터의 언급에 주목해서 경제사, 통계학, 경제이론, 경제사회학의 측면에서 넓게 비교한다는 점이다. 이는 김준보가 그만의 독특한 이자이론, 투자이론, 화폐론, 경기순환론을 전개하지 않은 데 따른 선택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Ⅴ장은 슈페터의 경제과학의 장단점과 김준보의 경제과학의 장점 및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Ⅱ. 슈페터의 경제학과 경제동학, 경제사회학, 통계학

슈페터의 경제학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기는 힘든 일이다. 그의 사유는 개방적이고 보편적이면서 어떤 특정한 접근방식에만 봉사하는 태도가 부족했고, 그의 이론체계는 다양하고 복잡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귀족적이고 보수적이며 변덕이는 아이디어가 풍성한 사람이었다(Schneider, 1970). 그의 제자 가운데에는 시장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경제를 분석했던 사무엘슨이나 토빈 같은 신고전파 경제학자도 있고, 시장의 안정성에 대해 회의적인 스위지나 하일브로너 같은 비주류경제학자도 있다. 슈페터 자신은 극단적 자유주의자, 케인지언, 맑스주의자 등 여러 색조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열렬한 찬사를 받았다. 그에게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자신의 인간관

2) 김준보의 슈페터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면, 그의 『현대경제학서설』(1981)에서 비전(vision)과 과학(science)에 대해 설명한다든지(1장 3절), 기술혁신의 규모와 파급효과에 차등을 두어 장기순환(‘콘트라티에프파동’), 중기순환(‘쥐글라순환’), 단기순환(‘키친순환’)을 구분한 슈페터를 언급한다든지(4장 2절), 성장과 발전을 구분하여 성장이론에서 차지하는 슈페터의 위상을 언급(16장 1절)하는 등 슈페터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다.

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그가 칭찬한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자신이 행한 작업의 질이 높은 이들이었다(Harris, 1951, p. 5). 그런 만큼 슈페터는 다양하게 해석되었고, 그 스스로는 독자들을 설득하는 데 완전히 실패할 때도 차도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감탄케 하는 충명함과 안목을 가졌다(Viner, 1954, p. 894). 슈페터는 과학과 지식 자체의 과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에게 지적 탐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그 성장을 보는 것이었다. 슈페터는 항상 사물을 새롭고 다양하게 접근하였고, 그래서인지 그의 관심사는 매우 폭넓다.³⁾

1. 경제과학(science of economics)⁴⁾

슈페터는 무엇보다 경제학자였다. 슈페터는 “경제학은 과학이고, 매우 중요한 양적 측면을 가진다”고 말한다(Schumpeter, 1933/1989, p. 100). 이런 양적 측면은 ‘세련된 상식’과 ‘도구지식’을 통해 경제사실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서 드러난다고 본다. 이론가들은 보통 자신이 처한 여러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런 상태를 그는 비전(vision) 단계라고 말한다. 이 단계는 개별 정치경제적 상황,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개인적 교육환경, 관련 저자들의 성향, 관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환경의 영향을 받는, 편견과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상태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경제 현상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어떤 통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사 어떤 경제 현상을 묘사하더라도 전과학적인(pre-scientific) 모습만 취할 뿐이라고 말한

3) 슈페터는 30여 권의 저서, 팜플렛과 리뷰를 포함한 논문 260여 편을 썼고, 이것을 포함해 슈페터를 다룬 저서 및 논문은 1907-1989년 사이 1,916개에 이른다. “경제발전”에 관한 것이 30%,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를 다룬 “정치학”에 관한 것이 13.5%, “학설사”·“전기”·“방법론”에 관한 것이 각각 10%, “경기순환”에 관한 것이 9.5%, “화폐”에 관한 것이 9%, 그리고 『제국주의와 사회계급』 같은 “경제사회학”에 관한 것이 7%를 차지한다. Augello (1990), p. 21 참조.

하누쉬와 피카는 슈페터의 저작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눈다. 첫째 ‘방법론 및 경제학설사’와 관련된 저작, 둘째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제도적 변화’와 관련된 저작,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혁신과 관련된 ‘경제발전이론’으로 나눈다. Hanusch and Pyka (2007), pp. 20-21.

4) 슈페터에게 경제학은 비전과 이데올로기에 많이 물들은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도 아니고, 단순한 수량적 측면만을 다루는 ‘경제학’(economics)도 아니라, 분석가가 애초에 가진 비전을 세련된 상식과 분석도구를 통해 경제 사실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경제과학’(science of economics)을 의미한다. 슈페터는 경제학의 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다. Schumpeter (1914/2007)의 특히 1장을 참조할 것.

다. 슈페터에게 전과학적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전분석적인(pre-analytic)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슈페터는 어떤 이론가가 제대로 된 분석가가 되려면 여러 환경의 영향을 받는 편견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도구지식’과 ‘세련된 상식’의 도움을 통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과학은 편견과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고, 또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경제학이 특히 과학인 것은 수량적(quantitative) 측면을 갖기 때문이다. 정성적(qualitative) 측면은 너무나 다양한 해석을 낳고, 편견과 이데올로기에 물들기 쉽다고 본다. 그는 일찍이 오스트리아 빈 대학을 다닐 때 레옹 발라스의 일반균형분석에 큰 관심을 가졌었다. 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마샬과 에지워스에게 크게 공감한다. 마샬이 수리적 방법을 통해 경제현상을 균형분석으로 설명한 것은 슈페터에게 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게 했다. 에지워스가 무차별곡선과 계약곡선을 창안해서 교환 이론과 균형 개념을 설명한 것은 슈페터를 크게 감탄시켰다. 그는 수학이 현대이론에 필수적인 도구라고 믿었기에 경제현상을 수리적으로 표현한 경제학자들에게 크게 동조했다. 수리적으로 표현된 경제학을 그는 진정한 과학으로 여겼다.

2. 경제학 방법론

슈페터는 경제학을 경제사실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과학으로 정의하면서도, 과학은 검증가능한 것도 아니고 반증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이론은 본질적으로 임의적이며, 현상에 부합하고 현상에 의해 조건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슈페터는 프리드만과 같은 도구주의자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도구주의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방법론적 관용(methodological tolerance)을 주장한다(Shionoya, 1997). 그는 이론이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의 관찰에서 나오오, 사실이 이론 작업을 유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이론을 유도하는 사실은 확증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떤 통계적 사실도 어떤 명제를 확증하거나 반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론에 접근하든지 그 이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제한된 의미에서만 인과관계를 밝히는 정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떤 이론가가 자신의 방법만 유일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자기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기초지식조차 결여한, 어린이 같은 험량함을 드

러내는 것이라고 치부한다.

슈페터의 경제학 방법론이 방법론적 관용에 기초한다고 해서, 방법론적 전체주의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그가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그는 전자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지만, 후자를 그대로 용인한 것도 아니다. 그는 개인주의를 정치적 개인주의와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구분한다. 정치적 개인주의는 자유가 인류 진보에 기여한다는 일반적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태도와 관련된 개인주의라고 말한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어떤 전제도 없이 경제과정을 설명할 때 개인의 행동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분석과 관련된 개인주의라고 말한다. 슈페터는 일상생활에서 취하는 정치적 의미의 개인주의와 사회연구 출발점으로서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구별한다. 사회 전체의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자라도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택할 수 있고,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치적 개인주의자라도 사회적 범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 개인의 가치에 관심이 있던 슈페터는 경제이론을 설명할 때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택한다. 그러나 경제발전, 혁신, 관료제, 민주주의 같은 이론을 전개할 때 그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슈페터는 순수경제이론에 관심을 가진 연구 초반에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경도되었지만, 『경제발전이론』,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를 쓰면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회계급”을 논의할 때에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포기하기도 한다.

3. 경제동학

슈페터가 보기에 경제 사실은 불변의 상태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이지,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첫 저서인 『이론경제학의 본질과 주요 내용』(1908/2010)은 정밀과학으로서 순수경제학의 성질과 방법, 특히 정학과 동학의 구분, 경제학에서 수학의 필요성, 가격이론, 한계효용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최고의 이론경제학자로 레옹 발라스를 언급하고 있지만, 발라스 체계가 정학 경제를 총괄하는 것처럼 슈페터 자신은 동학 경제를 종합하는 이론을 일찍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경제발전이론』(1911/1934)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룬, 자본주의의 기능과 성

5) 전자의 경우로는 엘스터와 코엔 같은 분석적 맑스주의자가 대표적이고, 후자의 경우로는 토 크빌과 같은 자유주의자가 대표적이다.

장에 관한 동학 이론이다. 여기서 슈페터는 자본주의경제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혁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후 그는 혁신을 “새로운 생산함수의 장치”라고 간단하게 정의한다(Schumpeter, 1939, p. 87). 그리고 기업가가 혁신을 수행하는 주체라고 말한다. 기업가는 신제품을 도입하고,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원료공급처를 정복하고, 신산업조직을 도입하는 혁신가라는 것이다. 그에게 기업가는 생산요소를 그 이전의 용도에서 회수할 수 있는 ‘구매력 기금’을 갖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기업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부받아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슈페터는 기업가와 자본가를 구분한다. 슈페터에게는 기업가라는 요소 못지않게 신용이라는 요소가 동학 경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한다. 은행의 신용은 기업가의 혁신을 보증하는 감독관(ephor)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기업가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슈페터는 자본주의 경제를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혁명화하는 동학 과정으로 묘사할 수 있었다.⁶⁾

슈페터는 1930년대 대공황을 보면서 실제의 경제세계에서 신기업이 출현하면서 오래된 기업이 죽고,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오래된 기술이 사라지는 경기순환 현상에 주목한다. 이런 현상을 그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과정이라는 그만의 독창적 용어로 표현했다. 그에게 혁신이란 신상품, 신생산방법 같은 무언가 새로운 것의 상업적, 산업적 응용을 의미하고, 그 자체는 신시장, 신원료공급처, 신산업조직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혁신을 창조적 파괴라고 정리한다. 경기순환 현상에 주목한 슈페터는 이미 19세기 중엽에 맑스가 분석한 경제순환에 대한 분석을 보고 그를 제1급의 경제학자라고 말한 바 있다(Schumpeter, 1942/2016, 67-75쪽). 그는 맑스의 자본축적의 일반적 도식에서 사회진화가 이윤경제에 내재하거나 축적의 힘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본주의적 진보관에 대한 분석적이고 현실적인 미덕에 강한 인상을 받는다. 슈페터는 축적론, 자본의 집적과 집중, 경제발전 같은 맑스적 분석 요소들을 자신의 동학 체계 안에 넣는다. 사실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의 50%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ghion and Howitt, 1992), 이는 오늘날 내생적 성장이론의 기초가 된

6) 슈페터의 혁신과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성낙선(2005), 슈페터의 혁신 및 경쟁이론을 다원적 시각에서 해석한 것으로는 성낙선(2019), 슈페터의 혁신이론의 공백에 대해서는 성낙선(2025)을 각각 참조할 것.

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내생적 성장이론은 슈페터의 영향 아래 ‘성장’한 것이고, 그 시작은 맑스의 자본축적론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⁷⁾

4. 경제사회학

슈페터는 ‘제국주의’, ‘사회계급’, ‘조세국가의 위기’ 등 경제사회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경제학을 협소하게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은 이 글들을 경기순환이나 경제발전이론과 무관한 분야에 슈페터가 침범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한다.⁸⁾ 『슈페터체계』를 쓴 클레망스와 두디는 이 글들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Clemence and Doody, 1950). 슈페터는 사회학이 수량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정밀과학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경제학과 사회학의 “상호 풍부화는 상호 불모화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계했다(Schumpeter, 1954/2013, 1권, 89-90쪽).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사회학은 그 현상의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학적 접근이 경제학에 적용되면 경제학의 정밀과학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반대로 경제학의 엄밀한 접근방식이 사회학에 적용되면 사회를 포괄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사회학의 특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다. 슈페터는 누구보다 경제현상과 비경제현상을 뚜렷하게 구분했고, 경제현상에 대한 정밀하고 엄

7) 내생적 성장이론의 선구자인 로머는 기술혁신이 장기적인 거시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윌리엄 노드하우스(W. Nordhouse)와 함께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로머의 대표적인 논문 “Increasing Returns and Long Run Growth”(Romer, 1986)와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Romer, 1990)은 솔로우는 성장이론(Solow, 1957)과 솔로우는 스승인 슈페터의 기술혁신에 근거한 것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슈페터의 영향과는 별도로, 내생적 성장이론의 또 다른 선구자인 알린 영을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Young, 1928). 기술 진보의 내생성과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에 주목한 니콜라스 칼도어(N. Kaldor)는 알린 영이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가르친 학생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Thomas(2018), 특히 영과 칼도어의 관계에 대해서는 pp. 5, 7-8을 참조할 것.

8) 슈페터의 「인종적으로 동질적인 환경에서의 사회계급」(“Social Classes in an Ethnically Homogeneous Environment”, 1920)은 『경기순환』, 『경제발전이론』과 무관한 연구라고 평가하지만, 슈페터 자신은 이 논문을 자신의 주요한 과학적 저작으로 간주했다. 스위지는 『제국주의의 사회학』(1919)과 함께 “사회계급” 논문을, 맑스의 사회과학과 비교할 수 있게끔, 광범위한 “슈페터체계”에 넣어야 한다고 말한다. Sweezy(1951), pp. 119-120.

밀한 인과관계 분석을 중요하게 보았다.

그러나 슈페터가 제국주의와 사회계급을 다룬 글들이 그의 주요한 과학적 저술로 간주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슈페터는 자본주의란 다른 사회체제처럼 과도적 현상으로서, 자본주의가 태어나서 그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사멸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본주의의 기원에 관한 이론, 기능과 성장의 이론, 쇠퇴의 이론을 모두 갖추어야 자본주의에 관한 완전한 이론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의 『경제발전이론』은 자본주의 과정의 기능과 성장을 다룬 이론이다. 그러나 그는 이 이론만으로는 제국주의와 전쟁 같은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제국주의’에 관한 에세이를 틈틈이 썼던 것이다. 이 에세이는 ‘슈페터의 체계’라는 건물을 세우는 석재들 중 하나가 아니라 건물구조를 세우게 하는 지주 중 하나일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Sweezy, 1951, p. 121). 슈페터의 사회계급에 관한 에세이는 자본주의의 발생의 이론으로서 의미가 있었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슈페터의 표현대로 단순히 정치학 책이 아니라 (Schumpeter, 1942/2016, 15쪽), 자본주의 쇠퇴에 관한 여러 현상들-지지체층의 이탈, 지식인들의 비관적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관료제 등등-을 다룬 그의 40여 년간의 사색과 관찰의 결과였던 것이다.

5. 통계학

슈페터는 자신의 자본주의 동학이론을 통계적, 역사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39년 『경기순환』이 출간된다. 슈페터는 자본주의경제의 순환과 변동이 단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는 경기변동의 현상에 일찍이 주목한 맑스가 당시로서는 드물게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고 평한 바 있다(Schumpeter, 1942/2016, 70쪽),⁹⁾ 슈페터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순환의 사이클이 콘트라티예프, 쥐글라, 키친이라는 3개의 패턴을 그리고 있음을 『경기순환』에서 보여주었다. 특히 그는 혁신이 경제발전에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역사적 증거를 예시로 든다. 사건의 역사적 경과가 이론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슈페터의 자본주의

9) 영국의 경제학자 데사이드 맑스는 경기순환이론을 발전시킨 최초의 고전 경제학자라고 말한다(Desai, 2003, 126쪽).

동학이론은 『경기순환』에서 통계자료와 역사적 증거를 통해 검증되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슈페터에게 통계적 방법은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훌륭한 분석도구였던 셈이다. 그가 『경기순환』에서 예시로 든 역사는, 그 이론이 맞든 틀리든, 이론적으로 중립적인 역사 이상으로 의미있고 암시적인 내용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슈페터는 자신이 사용한 통계 도구들의 품질에 대해서 크게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그는 최소자승법 같은 통계적 방법을 거부하기도 했다(Freeman and Louçã, 2021, 73쪽). 아마도 그는 자신이 사용한 통계 도구들을 잘 다루지도 못했고, 또 거부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페터가 자신의 경제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을 동원한 사실은 반드시 기억될 필요가 있다.

슈페터는 생애 말년 10여 년간 대부분을 『경제분석의 역사』(1954)의 집필에 몰두하였다. 사후 출간된 이 책은 1부에서 과학적 분석과 비전, 이데올로기의 문제 등 경제학의 방법에 관한 것을 다루고, 2부에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18세기 후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까지 경제 현상의 역사적, 통계적, 이론적 인식의 계통화 과정을 다루며, 3부에서는 고전파경제학, 4부에서는 한계혁명 이후 1914년 무렵까지의 경제분석의 발전 과정을 서술하고, 5부는 미완의 원고로써 경제학의 현상을 과거의 연구와 관련시켜 경제이론의 발전에 대해 스케치하고 있다. 이 책에서 주목할 것은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 즉 스미스-리카아도-밀-마샬로 이어지는 정학 중심의 전통적 시각을 비판하고, 페티-깁더웅-게네-튀르고-세이-꾸르노-발라스로 이어지는 일반균형의 시각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는 새로운 전통 속에서 발라스를 최고의 경제학자로 제시했다. “순수이론에 관한 한, 내 견해로는 발라스가 모든 경제학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 ‘혁명적인’ 창조성이라는 자질과 함께 고전적 종합이라는 특성까지 겸비하고 있는 그의 경제균형 체계는 이론물리학의 성과에 견줄만한 유일한 경제학 저서이다 그것은 경제학이 엄밀하고 정확한 과학의 지위를 향해 여행하는 도정 위에 놓인 뛰어난 이정표였으며, 오늘날에도 유행에 뒤진 것이긴 하지만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이론적 저작의 근저에 놓여 있다”(슈페터, 1954/2013, 3권, 147쪽). 슈페터는 발라스가 경제량 사이의 상호의존이라는 순수논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장치와 경제체계의 개념을 가진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간주했다. 그러나 그는 발라스의 이론체계가 자본주의를 스스로 변형시키는 내적 힘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이런 한계는,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자본주의경제를 동학 경제로 인식한

맑스를 통해 보다 분명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Ⅲ. 김준보의 경제학과 경제사, 경제이론, 통계학

한국의 경제학자 김준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떤 학자인지 잘 모르거나 농업 경제학자로만 알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를 서술한 경제사학자이자, 자본주의경제의 운동법칙을 탐구한 뛰어난 경제이론가였다. 동시에 추측통계, 경제통계론을 저술한 통계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경제사, 경제이론, 통계학, 농업경제학을 아우르는 방대한 분량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전방위적인 사회과학자였다. 이런 연구는, 그가 활동하던 당시의 척박한 연구 환경과 한국 경제학계의 열악한 조건을 고려하면, 한 개인의 작업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성과였다.

1. 경제학의 성격

무엇보다 김준보는 경제학이란 경제문제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이며, 현실적인 인간 사회의 물질적 기초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보편적 운동법칙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⁰⁾ 그에게 경제학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실성을 띠어야 하고, 역사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학은 일정한 규칙성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논리적 성격을 가지지만, 현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또 그 개선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현실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성에다가 오늘의 물질생활을 규정하는 자본주의사회를 중점적으로 다루되 자본주의사회와 중첩되어 있는 비자본주의적 요소와 후진사회의 요소도 다루는 역사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김준보에게, 경제학은 현실성과 역사성의 요소가 들어간 경제문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인 것이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이론(분석)과 역사(비교)와 실천(비판)의 삼위일체적 종합을 가져오게 마련이며, 그 중 경제학에 있어서 그러한 방법론의 실효성은 각별할 뿐이다”(김준보, 2009, 679쪽).

10) 김준보, 『일반경제학』, 박영사, (초판 1958), 新稿 초판 1974, 44-45쪽. 김준보, 「한국 소농의 주체성 재평가」(『학술원논문집』), 『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에 재수록, 농민신문사, 2009, 675-679쪽.

그래서 김준보는 현실성과 역사성이 배제된 로빈슨 크루소적인 ‘추상적 인간’을 다루는 신고전과 경제학을 강력히 비판한다. 경제학에 대한 김준보의 일관된 태도는, 경제학이 ‘역사적 인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김준보, 1979, 5-10쪽). 신고전파가 상정한 ‘추상적 인간’은 1) 자유경쟁 하에서 성장과 분배의 최대 효과의 얻으려는 이기적 경제인으로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독점화 경향과 분배의 부조리에 대비하지 못하고, 2) ‘스태그플레이션’에 명쾌한 해명을 주지 못하고, 3) 한국과 같이 식민지를 겪은 나라의 경제성장을 평가하지도 못하고 경제적 지배관계를 내면적으로 밝히지 못하며, 4) 자유경쟁 하의 공평한 분배라는 정태적 성립조건만 추구하여 효과적인 후생이론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고전과 주류경제학이 주체로 삼은 로빈슨 크루소적 인간은 추상적이고 정태적(static)이어서 사회적 마찰 현상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경제학은 역사적 인간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추상적 인간만을 경제학의 분석 대상으로 삼으면, 그런 경제학은 ‘동물적 인간’을 다루는 것과 다를없는 만큼 경제학을 사회과학이 아닌 자연과학의 범주로 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김준보에게 경제학은 ‘역사적 인간’을 당연히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현실적 경제문제의 인과관계를 역사적 비교 방법에서 깊이 추구하면 할수록 사회과학의 범위와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고, 객관적 가치평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역사적 인간’이란 사회적 지위,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경제적 반응이 달라지는 인간을 말한다. 역사적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 경제학은 비로소 이론과 역사와 실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준보는 경제학의 대상인 역사적 인간을 한국의 소농에서 찾고 있다.¹¹⁾ 즉, 그는 “한국 농촌의 소농이나 소작농을 내면적으로 볼 때, 특유한 역사성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김준보, 2009, 763쪽). 그에게 한국의 소농은 생산한 농

11) 소농이란 1) 자영적 소규모 토지와 다소의 노동시설과 노동수단을 보유하고 2) 생산은 대부분 가족 등 자가노동에 의존하고, 농업노동자도 지주도 농기업가도 아닌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분화하는 과도적 경제주체이며 3) 반자급적 단순상품생산자로 생산과 소비가 미분화 상태에 있어 농산물 판매는 소농의 가게소비에 의존하며 4) 생산활동은 대체로 비수익적으로 이윤은 고사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보장받지 못하며 5) 구조적으로 상당량의 잠재실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6) 생산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이 불안정하고 만성적인 수지 부족 상태를 겪는 존재들이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소농은 가족의 생계비만 확보되면 계속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존재들이다. 김준보, 『농업경제학서설』,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7 참조.

산물을 일반 공산품처럼 자유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분석하면 제대로 분석될 수 없는 대상이다. 그는 소농을 다루는 농업경제학이 단순히 효용극대화, 이윤극대화에 기초하여 시장경제의 논리대로 설명하는 응용경제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오히려 그는 농민들의 생존조건과 독점시장의 지배력이 복합적으로 행사되는 농업문제를 현실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경제이론을 농업경제학에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농업을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신고전파 논리를 따르는 응용경제학일 뿐이고, 한국농업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농가는 가족적 소농으로 비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는 농업경제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적용을 받는 일반경제학의 응용 분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농업경제학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족의 생계비만 확보되면 계속 생산하는 소농 경제와 기업농보다 소농을 통해 독점이윤을 확보하는 시장경제를 동시에 해명해야 하며, 농업의 특수성을 다룬 농업기술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박정근, 2015).

2. 경제사

소농이라는 역사적 인간에 주목한 김준보는 지대 형태의 변화를 통해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를 다룬다. 그는 일찍이 1957년 「금융자본주의하의 영세농의 성격」을 발표하여 소농의 존재 형태를 살펴본 바 있다.¹²⁾ 이 논문에서 그는 일본제국의 금융자본 아래에서 이들의 최대의 이윤 확보가 경제의 기본 법칙으로 작용하고, 이 단계에서 지대는 금융자본의 이윤 혹은 이자로 전화되고, 지주는 평균이윤을 수취하는 산업자본가가 되고, 영세소작농은 독립경영자의 의의를 상실하고 임노동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확대 적용해 그는 『농업경제학서설』(고려대학교출판부, 1967)과 『한국자본주의사연구』 I·II·III(일조각, 1970, 1974, 1977)를 출간했다. 특히 『한국자본주의사연구』는 지대라는 경제이론의 범주를 가지고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를 다룬 역작이다.

한국자본주의사 연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책 3권의 목적은 한국자본주의의 발전단계를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대의 범주를 한국자본

12) 서울대학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5집, 1957. 이 논문은 『농업경제학서설』(고려대학교출판부, 1967)의 3장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 게재되었다.

주의 발전을 시대 구분하기 위한 지표로 삼았다. 그는 “개항 전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한국경제의 변천 과정을 ‘지대’라는 하나의 기저적 요인을 지표삼아 체계화”(김준보, 1974, iii쪽)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자본주의가 1876년 개항을 계기로 외래 자본의 침략을 받으면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서양에서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로의 이행이 봉건지대의 근대화에서 특징적으로 파악된다는 점을 지대 형태의 변화를 통해 한국에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김준보는 “봉건지대의 근대화 과정과 한국자본주의사를 대응시켜 관찰함으로써 스스로 구분되는 몇 단계의 시대적 특징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전체 경제의 체제적 동태를 그것(지대/인용자)을 통하여 규정”하려고 했다. 여기에 더해 현실적 농업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대의 변질성을 살펴보고, 각 시대마다의 농업공황의 특징을 『한국자본주의사연구』 III(1977)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준보의 이러한 경제사 연구는 이론 연구와 역사 연구를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경제사 연구 분위기를 뛰어넘어, 경제이론을 역사 연구로 전환한 획기적인 작업이었다.¹³⁾

3. 경제이론

다음으로, 김준보의 경제이론 분야의 업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준보가 다룬 일반경제학과 이론경제학은 서로 유사하면서도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일반경제학과 이론경제학은 그가 농업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주 전공인 농업경제학을 넘어 농업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집필된 것이다. 그는 『일반경제학』(1958)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구조를 역사적, 동태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마련한 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자본주의와 전자본주의사회의 구별, 자본주의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성립한 경제학의 탄생과 각 학파의 개략적 구분, 케인즈의 거시경제모형에 따른 국민경제의 구성

13) 한국의 경제사학은 그동안 경제이론이 아니라 역사이론에 근거해 과거의 경제적 사실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역사이론에 근거해서 경제적 사실을 분석하는 사학과와 경제사 연구는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경제사 접근 방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준보는 경제이론에 근거해 과거의 경제적 사실을 분석한 한국 경제사학계의 ‘이단아’였다. 그는 ‘농업경제학과’, ‘통계학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학과 단위를 기준으로 학문 분야가 규정되는 한국만의 독특한 학문적 분위기를 뛰어넘어, 경제이론에 근거해서 경제적 사실을 역사적으로 해석한 경제사학자였다.

요소(가계, 기업)와 순환, 산업경제의 기본구조로서 상품의 생산과 잉여가치의 발생, 교환경제의 기본조건으로서 화폐의 본질과 통화제도, 자본의 순환과 회전, 자본의 총과정으로서 지대, 상업이윤, 이자의 기능과 역할, 국민경제의 재생산구조와 자본의 축적 및 성장과 경기변동, 국제경제 및 후진국 경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론경제학』(1961)은 기본적으로 케인즈 경제학을 설명한 것으로, 그는 현실 경제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 하나의 친절한 안내자가 되려는 목적으로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구성하는 소비함수, 투자함수, 화폐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일반이론의 동력화라는 주제 하에 헤로드·도마의 성장이론을 다루고, 투입산출분석과 선형계획법을 설명한다. 책 중간에 거시경제의 미시적 기초를 다루면서 거시경제이론의 논리성을 보완하고 있다.

『일반경제학』과 『이론경제학』은 모두 현실에서 나타나는 경제문제, 즉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과 경기후퇴, 실업, 빈곤의 문제 등을 설명할 목적으로 쓰인 경제이론서이다. 동시에 일반경제학은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 이론경제학은 케인즈 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다. 『일반경제학』에서는 맑스의 『자본론』 1·2·3권의 분석, 즉 자본주의경제의 분석의 기초로서 상품에 대한 분석,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 자본으로 전화되는 잉여가치의 생산과 자본축적, 자본의 순환과 재생산, 자본의 총과정으로서 이윤의 기업이윤, 상업이윤, 지대, 이자로의 분할을 다룬 맑스의 『자본론』의 분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케인즈의 거시경제모형을 도입해 국민경제가 순환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세계경제와 후진국경제를 추가하고 있다. 이런 설명 방식은 자본주의 경제를 원리론, 단계론, 현상분석으로 구분하는 일본의 맑스경제학자들(대표적으로 우노학파)의 논리를 뛰어넘는 설명 방식이라 할 수 있다.¹⁴⁾ 『이론경제학』은 케

14) 일본의 맑스경제학자들은 맑스의 『자본론』 분석 자체를 중시하는 정통파, 맑스의 『자본론』을 시민사회의 비판적 이해로 파악하는 시민사회파, 그리고 우노학파로 크게 분류된다. 이 가운데 일본의 맑스주의를 대표하는 우노학파는 맑스의 『자본론』을 생산·유통·분배로 나눠 원리적으로 분석하는 ‘원리론’,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를 다루는 ‘단계론’, 구체적 현실 경제를 다루는 ‘현상분석’으로 맑스경제학을 분류한다. 그러나 우노학파에게 단계론과 현상분석은 원리론으로 해명할 수 없는 경제학 분야라고 소극적으로 규정할 뿐, 거의 개척되지 않은 채 단계론과 현상분석에 이론적 시각을 도입하려한 시도를 이단시하는 실정이다. 특히 우노학파는 가치와 가격의 차원은 다르다고 주장함으로써 가치의 가격으로의 전형을 애초부터 무시한다. 이상의 내용은 高須賀義博(1985/1987)을 참조할 것.

우노학파의 가치의 가격으로의 전형을 문제삼지 않는 주장은 은퇴 이후 생의 마지막까지 확률

인즈 모형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경제이론서이다. 이 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슈페터의 경제학에서 발견되는 설명, 즉 과학과 ‘비전·이데올로기’의 문제, 장기침체와 기술혁신의 제약, 그 외로 게임이론에 대한 설명을 들 수 있다.

4. 통계학

김준보는 통계학 분야에서도 많은 저서와 업적을 남겼다. 그는 1946년부터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현대통계학』(1954), 『추측통계』(1956)를 집필하고, 「경제지표를 위한 이원적 연구-현행 물가제도를 중심으로」(1955), 「경제지표를 위한 이원적 연구(속)」(1956), 「일반이윤율의 확률론적 접근」(1957) 등과 같은 논문을 한국경제학회의 학술지 『경제학연구』에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1965년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경제통계론』(1969), 『산업연관분석론』(1975) 등 경제통계의 분석법, 경제통계의 작성, 추정, 검정법을 설명하는 책을 출간하였다. 그는 경제통계학과 통계학을 구분한다. 통계학은 경제 현상을 수량적으로 분석한다 하더라도 그 현상의 인과성을 밝히지 않는 반면, 경제통계학은 경제 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경제이론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경제학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학이 필요하며,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통계학을 함께 공부했다’고 회고한다(김영철, 2009, 51쪽).

그는 경제통계에서 볼 수 있는 각종 경제지표나 그 파라미터(탄력성, 자본계수, 투자승수 등)를 국가의 경제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가 쓴 『경제통계론』 전반부에서는 경제통계의 조사방법, 물가지수·생산지수·경기지수·임금지수·실업률·거래량지수·재정 및 금융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 국민소득·산업연관·자금순환·국제수지·재정통계 등의 의미와 작성 방법, 각 경제지표의 파라미터 및 파라미터의 추정법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생산함수, 소비함수, 수요·공급함수, 경기변동과 관련된 회귀분석 및 시계열분석, 경기예측과 관련된 각종 오차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사실 그는 1961년 『이론경제학』 5장 ‘경제의 계량과 예측’을 다루면서 경제학에서 통계적 방법을 쓰는 계량경제학적 접근을 이미 논의한 바 있다(김준보, 1961, 142-166쪽).

론적 시각에서 전형문제를 해결하려던 김준보의 시도와 뚜렷이 대비된다.

경제학자 김준보에게서 특별히 눈여겨볼 점은, 1981년 대학을 떠난 뒤 2007년 9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경제학 관련 저서와 논문이 꾸준히 집필되었다는 점이다. 『현대경제학서설』(1981), 『경제학기초논고』(1986), 『토지문제와 지대이론』(1987), 『경제학의 기초』(1991), 『한국근대사 특강』(1993) 등 9권의 저서와, 대부분의 학자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동을 멈추는 80세 이후에도 「가치와 가격전화론」(1996), 「가치법칙의 재인식」(1998), 「지대와 허위의 사회적 가치」(1998), 「근자의 '화폐가치'논고」(1999), 「상품가치의 실체적 재인식」(2000), 「상품가치의 집단적 자연성 : 모집단과 표본의 가치관계」(2001a), 「신가치논고」(2001b), 「상품가치의 모집단성 재고」(2002), 「상품의 집단성과 현재적 가치론」(2004) 등 19편의 논문이 집필되었다(박정근, 2009, 66쪽). 이 가운데 김준보(2001b, 2002)의 논문은 스스로 자비 출간된 것으로, 임종 전까지 맑스경제학의 중요한 주제인 “가치의 전화문제”(소위 ‘전형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천기길, 2009, 56쪽).

IV. 쉘페터와 김준보의 경제과학 비교

쉘페터와 김준보는 경제이론, 통계학, 경제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업적을 남긴 경제학자였다. 쉘페터는 경제이론, 경제학 방법론, 경기순환, 경제학설사, 화폐론, 경제사회학, 정치학 등 연구 활동을 통해 다루는 분야마다 의미있는 통찰을 보여주었다. 그는 연구 생활 전체에 걸쳐 자본주의 과정의 이론적, 역사적, 통계적 분석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김준보는 지대이론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의 역사를 다룬 『한국자본주의사연구』라는 탁월한 저서를 남겼다. 김준보는 농업경제학 외에도 경제사, 경제이론, 경제통계학 등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한 전방위적인 경제학자였다. 이하에서는 두 경제학자의 연구 활동을, 쉘페터가 『경제분석의 역사』에서 경제과학의 분석기법으로 거론한 역사, 통계, 이론, 경제사회학의 순서로 비교해 본다.

1. 경제사

먼저 경제사의 측면에서, 쉘페터는 자신이 다시 공부할 수만 있다면 경제사를 공

부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경제과학에서 경제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게 경제사는 경제과학의 중요한 토착이었다. 그가 경제사와 관련된 연구를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중요한 저서 중 하나인 『경기순환』(1939)은 역사적 예시를 통해서 경기순환의 3가지 패턴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6장에서는 자본주의 과정의 역사에 필요한 원리 문제를 논하면서 1787년에서 1842년까지의 장기파동(‘산업혁명’ 콘트라티에프 순환)을 다루고, 7장에서는 1843년에서 1897년까지의 제2차 콘트라티에프 장기순환(‘부르조아’ 콘트라티에프)과 1898년에서 1913년까지의 제3차 콘트라티에프의 첫 번째 16년(‘신중상주의’ 콘트라티에프)을 다루고 있으며, 14장에서는 1919년에서 1929년까지의 10여 년간 미국, 영국, 독일의 역사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일반 역사, 경제사, 특히 산업사는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문제(경제변화의 문제/인용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다”(Schumpeter, 1939, p. 13)고 강조한다. 슈페터가 경제과학에서 역사적 분석을 중시하고 있는 점은 그를 단순한 신고전파 경제학자라고 치부하기 어렵게 한다.

김준보는 농업경제학자이면서 동시에 경제이론을 가지고 역사 분석을 행한 경제사학자이다. 그는 지대 형태의 변화를 통해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서양에서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로의 이행과정이 봉건지대의 근대화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논리를 한국사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그전까지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비판하기 위해 등장한 ‘자본주의 맹아론’ 중심의 연구를 진일보시킨 시도였다. 김준보의 한국자본주의사 연구는 슈페터의 표현대로, ‘사실과 이론을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경제이론이 역사분석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실현한 제1급의 경제학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 김준보의 한국자본주의사 연구에 대한 비판이 몇몇 존재하기는 했다. 예컨대 개항에 뒤따른 외래자본의 침투와 곡물무역의 성행에 따른 상업적 농업의 등장으로 지대와 이윤이 분리되었다는 김준보의 주장에 대해 이는 상업적 농업을 ‘기업농’으로 잘못 인식한 논리라는 비판(김병태, 1974)이라든지, 토지조사사업 이후 일본인에 의해 취득된 토지의 지주가 그 토지를 조선인에게 소작을 주어 고율의 소작료를 거둔 것은 봉건지대가 아니라 이윤이고 소작농은 임금노동자라는 김준보의 ‘노농파적’ 주장에 대해 일본제국주의의 한 영역으로 포섭된 식민지 조선을 자본주의사회로만 구성된 것으로 이해한 일반이론에 대한 ‘몰이해’이자 식민지에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괴리, 토지소유관계의 근

대적 성격과 노동과정으로서의 생산양식의 전근대적 성격 간의 괴리를 고려하지 못한 고전이 지니는 시대적 제약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안병직, 1986)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판은 좀더 상세한 검토를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경제이론을 역사분석으로 전환’시킨 김준보의 업적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2. 통계학

두 번째로 통계학의 측면에서, 슈페터는 『경기순환』에서 여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경기순환의 사이클이 콘트라티예프, 쥐글라, 키친이라는 3가지 패턴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순환』의 8장에서는 물가에 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미국, 영국, 독일의 경제 상태를 보여주었고, 9장에서는 산출량과 고용의 통계자료를 통해 세 나라의 경기변동을 보여주며, 10장에서는 선철, 철도, 구리, 무연탄, 역청탄, 강철, 석유, 고무, 밀 등 개별 상품의 가격 및 생산량의 변동을 보여준다. 11장에서는 소비재 지출, 생산재 지출, 국민소득, 임금, 예금과 대부 등의 변동을 보여주고, 12장에서는 이자율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하고 있으며, 13장에서는 은행권과 사적 예금의 추이, 런던의 주가와 콜금리의 변동, 독일의 주가와 배당금 등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적 자료는 슈페터에게 경제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훌륭한 분석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김준보는 농업경제학 교수에서 통계학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경제통계의 분석법, 경제통계의 작성, 추정, 검정법을 설명하는 많은 책을 출간했다. 그는 각종 경제지표나 파라미터를 통해 경제정책, 또는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통계론』(1969)은 1960년대에 집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계열(time-series)에 관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제학 분야에서 합리적 기대이론과 벡터 자기회귀(VAR) 추정이 부상한 1970년대 이후 시계열 모형 추정이 보편적으로 이용된 점을 감안하면 시대를 많이 앞선 것이었다(이태호, 2009, 90-91쪽). 또한 경제학계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고, 한국은행의 통계도 매우 불완전하게 작성되던 시절 김준보는 ‘산업연관표’에 관심을 갖고, 『산업연관분석론』을 1975년에 저술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김준보의 통계학에 대한 관심은 경제학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분석의 기법에서 통계학의 역할을 강조한 슈페터의 생각을 연상케 한다.

3. 경제이론

세 번째로 경제이론의 측면에서, 슈페터는 경제학은 과학이고 경제사실 간 인과 관계를 수량적 측면에서 규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경제학은 연구자 개인이 처한 편견과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역사학, 철학, 문학과 같은 교양을 통해 세련된 상식을 갖추고 동시에 수학, 통계학 같은 분석도구를 통해 경제사실 간 인과관계를 밝히는 학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페티-캥띠옹-께네-세이-꾸르노-발라스로 이어지는 수리적 분석을 통해 경제사실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학자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그는 경제량 사이의 상호의존이라는 순수논리를 정밀하게 파악한 레옹 발라스의 일반균형 체계를 최고의 경제이론이라고 간주했다. 나아가 슈페터는 경제요소 상호 간의 일반균형 체계를 확장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끊임없는 내적 변화의 힘=혁신을 자신의 동학이론 모형에서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김준보는 경제학이란 경제문제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이며 현실적인 인간 사회의 물질적 기초에 대해 역사적으로 관통하는 보편적 운동법칙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경제학은 일정한 규칙성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논리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현실이 직면한 상황을 다루고 또 그 개선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현실성을 갖는 실천과학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현실성이 배제된 추상적 인간을 다루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해 그는 비판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슈페터가 경제이론의 순수논리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데 반해, 김준보는 경제학의 실천성을 좀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학자간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¹⁵⁾ 두 경제학자 모두

15) 김준보는 경제학의 기능에 대해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경제학이 하나의 순수한 과학인 이상 처음부터 그가 어떠한 구체적인 실천 목적의 실현성을 표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형식적으로 말하면 그는 어디까지나 객관 사상(事象)의 일반을 냉철히 관찰하고 **보편 타당한 원리**를 추구함을 임무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목적성 내지 당위성에 대한 아카데미의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문화 일반이 시대적 또는 사회적 기저(基底)를 떠날 수 없는 만큼 과학이 그의 기저적인 목적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그에 대한 요구성은 더욱 긴박히 요구되는 과학의 **‘실천성’**에 비추어 점차 짙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현대경제학은 현대적 기능을 남김없이 감행할 수 있도록 시대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경제학은 당연히 어떠한 상투적인 방법론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한층 세련된 동시에 현실적인 방법론의 발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조는 인용자의 것. 내용 중 일부 오타를 수정하고, 표현 중 일부는 현대식으로 바꿈).

경제학이 경제사실 간 수량적 인과관계를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동일하다. 여기서 우리는 김준보의 『일반경제학』(1958)이 오늘날 경제이론서에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경제의 기본 구조를 역사적, 동학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본주의경제와 전자본주의사회의 비교·설명, 경제학의 탄생과 각 학파의 특징에 대한 설명, 경제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귀 기울여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당시 농업경제학을 전공하던 그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이론서를 저술했다는 것은, 자신의 전공 이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오늘날 경제학계의 풍토와 비교하면, 매우 예외적인 작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경제사회학

마지막으로 경제사회학의 측면에서, 슈페터는 자본주의의 발생에 관한 이론으로서 “사회계급”에 관한 에세이를 쓰고, 자본주의 쇠퇴에 관한 이론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 관한 대중적인 저서를 남겼다. 슈페터를 제한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은 위의 에세이나 저서를 슈페터의 본래적인 연구 활동에서의 일탈로 바라본다(Clemence and Doody, 1950). 그러나 슈페터는 자본주의의 발생, 기능 및 성장, 쇠퇴 모두에 관심을 가진 사회과학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스스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 관해 40여 년간 사색과 관찰을 한 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힌 점에서 경제사회학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다. 경제사회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맑스를 역사적 사실과 현대적 사실을 광범하게 파악한 수준 높은 “사회학자”로 평가하고, 맑스의 사회계급이론을 중요한 공헌이라고 말하는 데로 이어진다(Schumpeter, 1942/2016, 27-44, 특히 29-30, 34-35쪽). 슈페터에게 미친 맑스의 영향은 압도적이었던 셈이다. 혹자는 슈페터가 관료제, 지식인, 사회적 분위기 등을 언급했다고 해서, 그가 베버의 영향을 주로 받았다고 말한다(Swedberg, 1991). 슈페터는 독일역사학과에 지적 기원을 두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Reinert, 2002, p. 25). 베버와 독일 역사학과의 영향을 슈페터가 받은 것은 물론 부인하기 어렵다.

김준보(1955), 「경제학의 현대적 기능」, 『경영논총』 제2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에 재수록, 농민신문사, 2009, 728쪽.

그러나 슈페터의 머리 속에는 항상 맑스가 자리하고 있었다.¹⁶⁾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초판 서문에서, 슈페터는 스스로 맑스주의자가 아니지만 맑스 이론의 독특한 중요성에 주목해서 그 책의 1부와 2부를 썼다고 말한다. 슈페터의 제자이자 신고전파 경제학을 대표하는 제임스 토빈은, 맑스는 슈페터의 ‘우상이자 목표’였다는, 메르츠의 견해에 깊은 동감을 표시한다(Tobin, 1991, p. x iii). 경제학, 경제사회학, 정치학을 아우르는 슈페터 체계의 웅대한 구도 속에는 맑스의 영향이 상당히 깊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Sweezy, 1951, p. 121).

김준보는 “사회계급”이나 “제국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경제사회학의 주제를 다룬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빈곤 현상에 주목했고, 농업문제가 빈곤을 떠나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제학자였다. 다시 말해 그는 경제사회학의 한 주제인 빈곤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농업경제학을 택하였다. 그에게 농업문제는 정치적인 것(농민문제) 또는 사회적인 것(농촌문제)이 아니라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된 것이었다(김준보, 1967, 47쪽). 빈곤이 심각한 현실의 농업문제, 특별히 한국적 소농문제의 내면적 조건을 본질적 대상으로 추구하는 것이 그가 추구한 농업경제학이었다. 그는 농업경제학이 고전적 형식을 따라서 자연과학적 분석론에 그치거나 단순한 시장기구의 조건만을 전제로 삼아 그 원리적 구성에 그친다면 사회과학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농업경제학은 단순히 지대이론으로 특징지어져 설명되거나, 특정 국가의 농업구조를 분석하는 과학으로 보거나,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론에 기초하여 시장 논리로 농업을 설명하는 응용경제학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그는 (1) 자본주의경제 하 소농생산의 피지배성을 인정하되 (2) 소농생산양식의 역사적 고유성을 무시하지 않고 (3) 독점자본주의 발전에 조응한 새로운 사회과학적·비판적 의식을 형성하는 독자적인 농업경제학을 정립하고자, 1957년 「금융자본주의하의 영세농의 성격」을 필두

16) 슈페터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사회제도 속에서 왜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경제사회학’이 경제분석에 중요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지만(Schumpeter, 1954/2013, 1권, 80-81쪽), 경제사회학과 관련이 깊은 베버는 결코 경제학자가 아니라고 평가한다(Schumpeter, 1954/2013, 3권, 134쪽). 다시 말해 슈페터에 대한 영향의 정도는 베버가 맑스에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슈페터가 역사학과의 정교하고 치밀한 이론의 부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슈페터는 독일 상황에서 역사학과의 압도적 영향력 때문에 발라스의 정밀한 이론경제학이 무시되었다고 파악한다(Swedberg ed., 1991, p. 39).

로, 이를 확대한 『농업경제학서설』을 1967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농업경제학의 분석대상을 주로 한국적 소농생산에 집약하고, 그 객관적 사회사상(事象)의 내면적 분석 가운데 이론의 역사성과 실천성을 담보해야 하며, 자본주의하 소생산양식의 운동법칙과 논리를 밝히는 것이 자신의 농업경제학이라고 주장한다.¹⁷⁾ 이어 그는 지대이론에 기초해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를 시기구분한 『한국자본주의사연구』 1~3권을 출간했고, 1987년에는 한국의 토지제도와 농지개혁을 전후한 영세농의 억압적 생산조건에 초점을 둔 『토지문제와 지대이론』을 출간했다. 한국의 영세농과 이들의 빈곤 문제에 관한 그의 경제사회학적 주제의 연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인간소외의 물적 기초를 해명하려는 근본적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문제의식의 기저에는 맑스의 자본주의사회의 운동법칙 및 논리에 대한 해명이 자리한다.

그밖에 김준보는 행하지 못했지만, 슈페터가 접근한 그만의 독특한 경제학 분야가 있다. 슈페터의 사후 출간된 『경제분석의 역사』(1954)가 그것이다. 이 책은 경제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통상적인 경제사상의 역사(history of economic thought)가 아니라, 경제현상 간 인과관계를 주로 설명하는 경제학의 분석 도구의 품질의 변화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경제분석의 역사(history of economic analysis)로 불린다. 슈페터는 이 책에서 가장 순수한 경제이론이 무엇이고, 경제분석의 도구가 순수하게 경제학적 의미를 갖추게 되면 인간의 경제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시기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현대경제학에 이르기까지 80만 개의 영어 단어와, 색인을 포함 1260쪽의 분량 속에 1500여 명의 저자를 다룬 이 방대한 책은 어느 경제학자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위대한 성취라고 하겠다.

V. 결론에 대신하여

이상 20세기를 대표하는 서양의 경제학자 슈페터와 한국의 경제학자 김준보에 대해 살펴보았다. 슈페터와 김준보의 경제과학의 중심에는 항상 맑스가 자리하고 있었다. 슈페터의 자본주의 동학이론은 맑스의 자본축적론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

17) 『농업경제학서설』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황연수(2009)를 참조할 것.

고, 김준보의 『일반경제학』의 내용은 맑스의 『자본론』의 내용을 거의 풀이한 것이었다. 맑스는 자본주의경제의 운동법칙과 논리를 누구보다 체계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기술의 변화가 자본의 구성에 영향을 주고, 자본의 구성이 이윤율의 변화에 영향을 주어 자본주의경제가 순환적 변동을 한다는 것을 설명한 최초의 경제학자였다(Schumpeter, 1942/2016, 70쪽). 맑스의 사위인 라파르그에 회상에 따르면,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맑스의 설명은 두 가지 천재적 자질에서 나왔다고 한다. 하나는 맑스가 어떤 사물을 구성요소로 분해하는 데 남다른 재능을 가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발전 형태를 가진 구성요소들로부터 그 내적인 상호관계를 발견하고 분해 대상을 다시 새롭게 재구성하는 작업의 대가였다는 것이다(Lafargue, 2009, 107쪽). 경제과학을 경제사실 간 인과관계의 분석으로 바라본 슈페터와 김준보에게는, 자본주의경제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그것을 분해하고 다시 재구성해서 그 의미를 찾아낸 맑스의 모습이 발견된다.

슈페터는 경제학이 역사, 이론, 통계학, 사회학을 아우르는 통합학문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경제학이 엄밀해야 하기도 하지만 사회·정치 문제와 연계된 사회현상을 폭넓게 관찰해서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본주의경제가 다른 사회체제처럼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자본주의의 기원, 자본주의 기능과 성장, 자본주의의 쇠퇴에 대해 각각 관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슈페터의 경제학의 장점 3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본주의의 기능 및 성장에 대해 슈페터는 자본주의경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력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더 성장하는가를 밝히는 작업, 즉 자본주의 동학이론에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였고, 그것을 『경제발전이론』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자본주의 동학이론을 기업가의 혁신과 신용의 역할을 통해 설명한 슈페터는 20세기 어떤 경제학자도 달성하지 못한 이론적 성취를 거둔 인물이었다. 둘째로, 자본주의의 기원 및 쇠퇴에 대해 그는 경제문제를 단순히 경제현상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고 인식한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였다, 그는 자본주의 발생의 이론으로서 ‘사회계급’에 관한 에세이를 작성했고, 혁신의 일상화로 인한 자본주의의 역동성의 쇠퇴와 지지층의 이탈, 사회에 만연한 비관적 분위기, 관료제의 문제 등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다룬 내용은 그의 거의 40여 년간의 사색과 관찰의 결과였다. 셋째로, 슈페터는 1910년대부터 관심을 가졌고, 생애 말년 10여 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스미스-리카도-밀-마샬로 이어지는 정학 중심의 경제학적 관점과

페티-깁슨-게네-튀르고-셰이-꾸르노-발라스로 이어지는 일반균형 중심의 경제학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고의 경제학설사가였다. 경제동학 이론의 정립, 자본주의의 발생과 쇠퇴에 관한 분석, 경제학설사의 체계적 분석은 어떤 경제학자도 이루지 못한 슈페터의 위대한 성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페터에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그는 경제요소 상호 간의 수리적 분석을 통한 일반균형 모형과 경제체계의 내적 변형을 가져오는 동학이론 모형의 통합을 시도했지만(Freeman and Louçã, 2001/2021, 72쪽),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일반균형 모형을 분석한 레옹 발라스를 최고의 경제학자로 손꼽으면서도, 발라스의 이론이 맑스가 분석한 자본주의 동학이론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슈페터는 전자의 이론에 유보적 단서를 달 수밖에 없었고, 후자의 이론을 추구하는 데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인정했듯이, 발라스의 순수이론을 포기하고, 맑스의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모든 균형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어떤 힘의 원천이 경제 내에 존재하는 경제발전의 순수이론’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그는 수학, 통계학으로 대표되는 경제이론의 도구적 측면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경제이론이 실천적으로 기여할 바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¹⁸⁾ 다시 말해 경제학에서 ‘분석도구’와 ‘세련된 상식’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그의 이론 중심적 태도는, 현재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실천적 의의를 약화하는 데 일조했다.¹⁹⁾ 슈페터는 정치에 깊숙이 관여한 경제학자들을 맹렬히 비난하는데, 이런 비난은 그가 경제이론을 너무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일 수 있다.²⁰⁾ 그가 우려하는 대로, 이론의 과도한 일반화에 기초한 선부론 현실 개입은 ‘정부의 실패’와 같은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18) 도구적 측면에 빠져든 실증경제학의 수학적 및 자연과학화 경향은 그것에 깊은 영향을 끼친 논리실증주의 과학철학의 해체와 함께 실증경제학 자체도 방법론적으로 해체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점에 대해서는 김균(1989)을 참조할 것.

19) “슈페터는 이론과 정책을 거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분리했다. 이런 분리는 그가 대중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며 장난스럽게 즐거움을 누림으로써 강화되었다”(Stigler, 1954/1991, p. 336).

20) 이런 측면을 일찍이 리틀(I. M. D. Little)은 『경제분석의 역사』를 펴하면서 지적하고 있다. Little(1955), “Essay in Bibliography and Criticism. XXXI: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Economic History Review* vol. 11, 8(1), in John C. Wood ed. (1991), *Joseph A. Schumpeter : Critical Assessments* Vol. II, Routledge, pp. 3-4. McCraw(2007), pp. 676-677 참조.

정책과 경제 분석을 분리'시키려는 슈페터의 시도는 경제학을 추상의 세계에 가두는 경향을 초래했다. 슈페터의 제자인 쓰루 시게토의 말대로, 그에게 이론과 실천의 통일은 낯선 것이었다(Shigetū, 1993, p. 264). 1950년대 이후 분석 도구의 개발에 힘쓴 신고전과 경제학의 현실을 떠난 경제분석은 슈페터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셋째, 그는 학문과 삶의 태도에서 너무 괴리된 모습을 보였다. 이 점은 그의 이론의 결점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내재적 비판보다는 외재적 비판이라 하겠다. 슈페터는 자본주의경제의 정학과 동학을 통합하려는 원대한 이상을 가진 반면, 외적 성공과 대중적 인기에 민감함으로써 자신의 저작에 대한 무반응과 무평가에 고통받는 존재였다. 그래서 슈페터는 '고상하고 엄격한 이상과 인간적 감정 및 충동 사이의 간극에 시달린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다(Haberler, 1951, p. 47). 한마디로 그는 동양에서 군자가 행하는 학문의 자세, 위기지학(爲己之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제학자였다.²¹⁾

김준보는 한국의 빼어난 경제학자였다. 무엇보다 그는 지대이론을 통해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의 역사를 분석한 경제사학자였다. 보통 이론은 역사와 별개로 추상적으로 접근되거나 아니면 역사적 예증을 통해서만 설명되곤 하는데, 그는 지대 형태의 변화를 통해 비록 식민지 상태이지만 조선에서의 자본의 지배 방식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추적한 '이론이 있는 역사'(정운영, 1985, 290쪽)를 쓴 경제사학자였다. 이 점은 '사실과 이론을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경제이론이 역사분석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았던) 최초의 일급 경제학자'라고 맑스에 대해 말한 슈페터의 평가를 연상시킨다. 김준보는 대학자 맑스에 부합하는 한국의 경제사학자였다. 둘째로, 그는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본주의 아래에서 고통받는 소농의 존재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투한 실천적 경제학자였다. 그가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것은, 일제 강점기에 집안 형편상 농업학교를 다니고 그것이 대학교의 전공으로 이어진 사정도 있겠지만,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고통받는 존재이자 해방 후에도 그 조건이 개선될 여지가 없던 소농에 대한 현실적 조건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택한 실천적 측면이 그에게 있었다.²²⁾ 셋째

21) "분명히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 야심적이었고, 혁신가의 모습이 천성적으로 그에게 호소력이 있었음은 우연이 아니다"(Samuelson, 1951, p. 49).

22) 슈페터와 달리, 김준보는 학문과 삶의 태도가 일치한, 보기 드문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학문 세계는 이미 본 그대로 실천적이고 역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학자로서 더 이상의

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젊었을 때 반짝 공부하다가 조기에 은퇴하는 일반적 풍토에서, 80세를 넘긴 세력(歲歷)에도 불구하고 「상품가치의 집단적 자연성」(『경제논집』 제40권 제2·3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1. 9), 「상품가치의 모집단성 재고」(신성인쇄상사, 2002), 「상품의 집단성과 현재적 가치론」(『학술원논문집』, 2004) 등 맑스경제학에서 다루는 ‘가치의 가격으로의 전형문제’에 그가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며 논문을 집필했다는 점은 기억되어야 한다. 아마도 89세의 나이에 『치명적 자만』을 저술한 하이에크의 신체적 능력과 정신력을 예외로 하면, 김준보만큼 오랜 기간 자신의 관심 분야에 지속적인 활동을 지탱한 경제학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학자 김준보에게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학계에서 그를 이을 계승자가 없다는 아쉬움이 그것이다. 통계학, 농업경제학 분야를 별도로 하면, 이 점은 김준보 본인에게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그를 이을 여건-예컨대 그의 소속 학과가 경제학과가 아니었다는 점-이 충족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김준보를 이을 경제학자가 있었다면 그가 『한국자본주의사연구』에서 전개한 지대 형태의 이윤화 기구에 기초한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는 좀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서거 직전까지 매달린 가치의 가격으로의 ‘전형문제’에 관한 후속 작업도 아마 이어졌을 것이다. 다음으로, 슈페터가 말년을 『경제분석의 역사』를 집필하는 데 몰두했던 것처럼, 서양 학문인 「경제학」을 동양의 세계와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한국의 경제학을 좀더 체계화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슈페터는 비록 자신의 이론체계가 복잡하고 스스로가 개방적인 성격이어서 ‘학과’를 거느리지 않았지만, 경제사, 경제이론, 통계학, 농업경제학을 아우른 김준보가 ‘한국의 경제학’을 우리의 전통에 입각해 스케치만이라도 해 놓았더라면, 그것에 기반한 후속 작업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여운이 남는다.

마무리하면서, “맑스의 자본론을 토대로 경제학 이론체계를 세우고 자본론을 수학과 통계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평생의 목표”(박정근, 2009, 67쪽)로 삼은 김준보가, 자신의 우상이던 맑스를 그렇게 뒤엎으려고 했던 슈페터와 비교한 이 글에 대

언급이 필요 없겠지만, 그의 삶의 모습이 실천적이고 확고한 역사인식,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한 회고에 따르면 그런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김준보는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을 만큼(반성환, 2009, 22쪽),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스스로의 청빈한 삶을 일치시킨 평생 학자였다.

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저어하는 마음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1. 김 규, “실증경제학 방법론의 해체경향에 대하여,” 『세계의 문학』, 51, 민음사, 1989.
(Translated in English) Kim, Kyun, “Concerning on the Tendency Toward the Deconstruction in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Literature of the World*, Vol. 51, Mineumsa, 1989.
2. 김병태, “지대범주와 이윤범주의 문제-‘한국자본주의사연구’ II 서평,” 『신동아』, 10월호, 1974.
(Translated in English) Kim, Byeong Tae, “Problem of the Category of Ground Rent and Profit : Review of ‘Study on the History of Capitalism in Korea’ II,” *Shindonga (New East Asia)*, October 1974.
3. 김영철, “회고사 VI : 김준보 선생님 소고,”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 세계』, 농민신문사, 2009.
(Translated in English) Kim, Young Chul, “Retrospective Remarks VI : Your Reflection on Kim Jun-bo,” *Life and Works of Kim Jun-bo : The Foremost Authority in Korean Agricultural Economics*, The Farmers Newspaper, 2009.
4. 김준보, “경제학의 현대적 기능,” 『경영논총』, 제2집,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에 재수록, 농민신문사, 1955(2009).
(Translated in English) Kim, Jun Bo, “Contemporary Function of Economics,”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2,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1955(2009).
5. ____, 『일반경제학』(新稿), 박영사, 1958(1974).
(Translated in English) Kim, Jun Bo, *General Economics*, Bakyongsas, 1958(1974).
6. ____, 『이론경제학』, 박영사, 1961.
(Translated in English) Kim, Jun Bo, *Theory of Economics*, Bakyongsas, 1961.
7. ____, 『농업경제학서설』,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7.
(Translated in English) Kim, Jun Bo, *Introduction of Agricultural Economics*, Korea University Press, 1967.
8. ____, 『경제통계론』(重版), 일조각, 1969(1982).
(Translation in English) Kim, Jun Bo, *Economic Statistics*, Ilchokak, 1969(1982).
9. ____, 『한국자본주의사연구』 I · II · III, 일조각, 1970, 1974, 1977.
(Translated in English) Kim, Jun Bo, *Study on the History of Capitalism in Korea*, I ·

- II · III, Ilchokak, 1970, 1974, 1977.
10. ———, “경제성장과 경제학의 반성-‘역사적 인간’의 재인식,” 『경제학연구』, 27집, 1979.
(Translated in English) Kim, Jun Bo, “Reflection of Economic Growth and Economics : Reconsideration of ‘Historical Human Being’,”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27, 1979.
 11. ———, 『현대경제학서설』, 법문사, 1981.
(Translated in English) Kim, Jun Bo, *Introduction of Modern Economics*, Bubmunsa, 1981.
 12. ———, “한국 소농의 주체성 재평가,” 『학술원논문집』,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에 재수록, 농민신문사, 2009.
(Translated in English) Kim, Jun Bo, “A Reappraisal of Economic Subjectivities of Korean Peasant Farmers,” *Proceedings of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2009.
 13. ———, “경제학의 발전과 ‘역사적 인간,’” 『사회과학논집』,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에 재수록, 농민신문사, 2009.
(Translated in English) Kim, Jun Bo,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Historical Human Being’,” *Review of Social Science*, 2009.
 14. 반성환, “김준보 교수님의 학구생활,”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 농민신문사, 2009.
(Translated in English) Ban, Sung Hwan, “Professor Kim Jun-bo’s Scholarly Life,” *Life and Works of Kim Jun-bo : The Foremost Authority in Korean Agricultural Economics*, The Farmers Newspaper, 2009.
 15. 박진환, “회고사 II : 잊을 수 없는 나의 스승이신 김준보 선생님,”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 농민신문사, 2009.
(Translated in English) Park, Jin Hwan, “Retrospective Remarks II : An Unforgettable Mentor of Mine, Kim Jun-bo,” *Life and Works of Kim Jun-bo : The Foremost Authority in Korean Agricultural Economics*, The Farmers Newspaper, 2009.
 16. 박정근, “해제 I : 경제학이론,”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 농민신문사, 2009.
(Translated in English) Park, Jung Keun, “Explanatory Introduction I : Economic Theory,” *Life and Works of Kim Jun-bo : The Foremost Authority in Korean Agricultural Economics*, The Farmers Newspaper, 2009.
 17. ———, “한국 농업경제학계의 태두 ‘김준보선생’ 탄생 100주년,” 농민신문, 2015. 7. 15.
(Translated in English) Park, Jung Keun, “Centenary of Kim Jun-bo’s Birth : The Foremost Authority in Korean Agricultural Economics,” The Farmers Newspaper, 2015.
 18. 성낙선, “슈페터, 경제발전 그리고 기업가의 역할,” 『경제학연구』, 제53집 제4호, 2005.
(Translated in English) Sung, Nag Sun, “Schumpeter,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Entrepreneur,”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53, No. 4, 2005.
 19. ———, “슈페터의 혁신 및 경쟁이론 : 다윈적 해석,” 『동향과 전망』 제106호, 2019.
(Translated in English) Sung, Nag Sun, “Theory of Innovation and Competition on Schumpeter : A Darwinian Interpretation,” *Trends and Prospects*, Vol. 106, 2019.

20. ———, “슈페터의 혁신 이론과 그 공백, 그리고 창조경제,” 『동향과 전망』 제123호, 2025.
(Translated in English) Sung, Nag Sun, “The Void of Schumpeter’s Innovation Theory and the Creative Economy,” *Trends and Prospects*, Vol. 123, 2025.
21. 안병직,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주제-김준보교수의 농업이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10호, 1986.
(Translated in English) Ahn, Byeong Jik, “Imperialism and Colonial Landlord System : A Critique of Agricultural Theory of Kim Jun-bo,”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10, 1986.
22. 이태호, “해제 II : 경제통계론-계량경제학의 기초체계,”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 농민신문사, 2009.
(Translated in English) Lee, Tae Ho, “Explanatory Introduction II : Economic Statistics - Basic System of Econometrics,” *Life and Works of Kim Jun-bo : The Foremost Authority in Korean Agricultural Economics*, The Farmers Newspaper, 2009.
23. 정운영, “한국자본주의사연구 I · II · III,” 『현대한국의 명저 100권』, 신동아 1985년 1월호 별책부록, 동아일보사, 1985.
(Translated in English) Jung, Woon Young, “Study on the History of Capitalism in Korea I · II · III,” *100 Masterpieces of Modern Korea*, Special Supplement of Shindonga, January 1985.
24. 주종환, “해제 III : 한국근대경제사 특강,”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 농민신문사, 2009.
(Translated in English) Joo, Jong Hwan, “Explanatory Introduction III : Special Lecture on Modern Korean Economic History,” *Life and Works of Kim Jun-bo : The Foremost Authority in Korean Agricultural Economics*, The Farmers Newspaper, 2009.
25. 천기길, “회고사 VII : 그냥 묻어두기엔 아까운 “에피소드”와 학문,”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 농민신문사, 2009.
(Translated in English) Chun, Ki Gil, “Retrospective Remarks VII : An ‘episode’ too good to keep hidden on Kim Jun-bo,” *Life and Works of Kim Jun-bo : The Foremost Authority in Korean Agricultural Economics*, The Farmers Newspaper, 2009.
26. 황연수, “해제 IV : 농업경제학서설-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 『한국농업경제학의 태두,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 농민신문사, 2009.
(Translated in English) Hwang, Yeon Soo, “Explanatory Introduction IV : Introduction of agricultural economics - Capitalism and Agricultural Problem in Korea,” *Life and Works of Kim Jun-bo : The Foremost Authority in Korean Agricultural Economics*, The Farmers Newspaper, 2009.
27. 高須賀義博, “マルクス經濟學,” 『經濟セミナー』, No. 364, 平田清明(강석규 역), 『경제원론』, 풀빛, 1985(1987).
(Translated in English) Takasuka Yoshihiro, “Marxist Economics,” *Economy Seminar*, No. 364 (in Japanese), 1985(1987).
28. Aghion, P. and P. Howitt,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Econometrica*, Vol. 60, No. 2, 1992, pp.323-351.
29. Augello, M. M., *Joseph Alois Schumpeter: A Reference Guide*, Springer-Verlag, 1990.

30. Clemence, R. V. and F. S. Doody, *The Schumpeterian System*, Addison Wesley Press, Inc., 1950.
31. Desai, M., *Marx's Revenge*, Verso, 김종원 역, 『마르크스의 복수』, 아침이슬, 2002(2003).
32. Freeman, C. and F. Louçã, *As Time Goes by :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s to the Information Revolution*, Oxford University Press, 김병근 외 역, 『혁신의 경제사』, 박영사, 2001(2021).
33. Haberler, G., "Joseph Alois Schumpeter, 1883-1950," in pp.24-47 of S.E. Harris ed., 1951.
34. Hanusch, H. and A. Pyka, "Schumpeter, Joseph Alois(1883-1950)," *Elgar Companion to Neo-Schumpeterian Economics*, Edward Elgar, 2007.
35. Harris, S. E., "Introductory Remarks," in pp.1-7 of Harris, S.E. ed., 1951.
36. Harris, S. E. ed., *Schumpeter, Social Scientist*,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37. Lafargue, P., *The Right to Be Lazy*, www.marxists.org/archive/Lafargue, 차영준 역, 「마르크스에 대한 회상」, 『게으를 권리』, 펄맥, 2009.
38. Little, "Essay in Bibliography and Criticism. X X XI: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Economic History Review*, Vol. 11, 8(1), pp.91-98, in pp.1-10 of Wood, J.C. ed., Vol. II, 1955(1991).
39. McCraw, T. K., *Prophet of Innovation : Joseph Schumpeter and Creative Destructi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40. Reinert, E., "Schumpeter in the Context of Two Cannons of Economic Thought," *Industry and Innovation*, 9:1-2, 2002.
41. Romer, P.,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4, No. 5, 1986, pp.1002-1037.
42. _____,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5, 1990, pp.S71-S102.
43. Samuelson, P. A., "Schumpeter as a Teacher and Economic Theorist," in pp.48-53 of S. E. Harris ed., 1951.
44. Schneider, E., tr. by W. E. Kuhn, *Schumpeter : Life and Work*, Bureau of Business Research,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1970(1975).
45. Schumpeter, J. A., Ed. by Bruce A. McDaniel, *The Nature and Essence of Economic Theory*, Transaction Publishers, 1908(2010).
46. _____, *Economic Doctrine and Method : An Historical Sketch*, 성낙선 역, 『경제학의 역사와 방법』, 한신대학교 출판부, 1914(2007).
47. _____, "The Sociology of Imperialisms," in tr. by H. Norden, *Imperialism and Social Classes*, Meridian Books, 1919(1955).
48. _____, "Social Classes in an Ethnically Homogeneous Environment," in tr. by H. Norden, *Imperialism and Social Classes*, Meridian Books, 1927(1955).
49. _____, "The Common Sense of Econometrics," *Econometrica* 1, in pp.100-107 of R.V. Clemence ed., *Essays on Entrepreneurs, Innovations, Business Cycles, and the Evolution of Capitalism*, Transaction Publishers, 1933(1989).

50. _____,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r. by Redvers Opie, Oxford University Press, 1934(1961).
51. _____, *Business Cycles: A Theoretical, Histor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apitalist Process 2 Vols.*,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39.
52. _____,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이종인 역,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북길드, 1942(2016).
53. _____,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Routledge, 김균 외 역, 『경제분석의 역사』 1-3, 한길사, 1954(2013).
54. Seidl, C., "Joseph Alois Schumpeter : Character, Life and Particulars of his Graz Period," in pp.187-205 of C. Seidl ed., *Lectures on Schumpeterian Economics*, Springer-Verlag, 1984.
55. Shigetou, T., "Two Studies of Schumpeter's Life : A Review Essay,"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Vol. 3, 1993, pp.263-268.
56. Shionoya, Y., *Schumpeter and the Idea of Social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57. Solow, R., "Technical Change and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39, 1957, pp.312-20.
58. Stigler, G. J., "Schumpeter's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2, pp.344-5, in pp.335-337 of Wood, J.C. ed., Vol. I, 1954(1991).
59. Stolper, W. F., *Joseph Alois Schumpeter: The Public Life of a Private M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60. Swedberg, R. ed., *Joseph A. Schumpeter: The Economics and Sociology of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61. Sweezy, P., "Schumpeter on Imperialism and Social Classes," in pp.119-124 of S.E. Harris ed., 1951.
62. Thomas, J., "Allyn Abbott Young(1876-1929) : His Impact on Economics at LSE," 2018. https://sticerd.lse.ac.uk/textonly/_NEW2018/ABOUT/HISTORY/papers/allyn-abbott-young.
63. Tobin, J., "Foreword," in März, E., *Joseph Schumpeter: Scholar, Teacher & Politician*, Yale University Press, 1991.
64. Viner, J., "Schumpeter's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4, 1954.
65. Wood, J. C. ed., *Joseph A. Schumpeter : Critical Assessments*, Vol. I · II, Routledge, 1991.
66. Young, A.,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Progress," *Economic Journal*, Vol. 38, No. 152, 1928, pp.527-542.

〈부록 : 김준보의 경력 및 활동〉²³⁾

〈학회 활동〉

- 1952년 11월 한국경제학회 창립 멤버
- 1957년 7월 한국농업경제학회 창립 및 초대 회장
- 1966년 4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 1971년 12월 한국통계학회 창립 및 초대 회장
- 1979년 4월 한국경제학회 회장

〈학력〉

- 1915년 7월 21일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동리 외가에서 김상순, 손장흥의 독자로 출생.
- 1930년 3월 전남 영암공립보통학교 6년 졸업
- 1935년 4월 전북 이리공립농업학교 5년 졸업
- 1938년 3월 수원고등농업학교 농학과 3년 졸업
- 1938년 4월 일본 구주제국대학 농학부 입학
- 1940년 10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
- 1941년 3월 일본 구주제국대학 농학부 3년 졸업(농업경제학 전공, 농학사 학위)
- 1964년 3월 국립 전북대학교에서 명예농학박사학위

〈주요 경력〉

- 1941년 4월 경기도 道屬
- 1942년 7월 경기도 연천군수
- 1944년 3월 조선총독부 墾工局 사무관
- 1946년 10월 국립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창립 및 교수 취임
- 1962년 3월 국립 전남대학교 총장
- 1965년 4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통계학과 창립 및 교수 취임
- 1966년 4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 1971년 12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장(~1975년 5월)
- 1974년 11월 『한국자본주의사연구』로 서울특별시 문화상(학술상) 수상
- 1980년 8월 고려대학교 교수 퇴임.

23) 이하의 내용은 『경제학연구』 제23집, 한국경제학회, 1975년 11월에서 정리함.

Schumpeter's Economics and Korean Economist Kim Jun-bo*

Nagsun Sung** · Kyun Kim***

Abstract

Joseph A. Schumpeter was one of the greatest economists of the 20th century. He emphasized that an economist is not properly qualified unless he is at once a thorough theorist, a skillful statistician, and, above all, a historian. Schumpeter possessed an encyclopedic knowledge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In Korea, Kim Jun-bo was an eminent economist comparable to Schumpeter. Although his primary field was agricultural economics, he also had a profound command of statistics, economic theory, and economic history. Most importantly, he was the first top-rank economist to recognize and systematically explain how economic theory could be transformed into historical analysis. The conception, method, and approach to economic science in both Schumpeter and Kim Jun-bo owed much to Karl Marx.

Key Words: Schumpeter, Kim Jun-bo, science of economics, statistics, economic history

JEL Classification: B2, B3, B4

Received: June 23, 2025. Revised: Aug. 21, 2025. Accepted: Sept. 10, 2025.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Hanshin University.

** First Author, Professor, Division of Economic and Finance, Hanshin University, 137, Hanshindaegil, Osan-si, Gyeonggi-do 18101, Korea, Phone: +82-31-379-0506, e-mail: nssung@hs.ac.kr

*** Corresponding Author, Emeritus Professor,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e-mail: kyunkim1@naver.com